

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11) 요도가와 휴테크

- 유망기술확보를 사업확대의 핵심으로-

- 동사는 1964년 창립된 기업으로서, 불소수지 등 특수수지제품과 반도체·액정 디스플레이용 제조장치에 관여하고 있음
- 동사는 틈새시장과 성장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M&A를 경영다각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
- 동사는 섬쟁·뉴(무언가 새로운 것)를 좌우명으로 삼고, 매년 하나는 신제품을 내도록 도전하고 있음

□ 부침이 격심한 일렉트로닉스업계서 성장전략

-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군, 해외기업의 추격으로 철수와 축소를 반복해온 일본의 일렉트로닉스산업
 - 그 이면에는 이들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와 장치 등은 일본기업이 아직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
- 불소수지 등 특수수지제품과 반도체·액정 디스플레이용 제조장치에 관여하는 요도가와(淀川)휴테크도 이러한 기업의 하나임
 - 2017년 3월기와 2018년 3월기는 각각 매출액이 300억 엔, 2016년 3월기 매출액 200억 엔에서 일거에 매출액이 50%가까이 증가함
 - ‘슈퍼사이클’이라고 불리는 장기간에 걸친 반도체업계의 활황과, 중국의 액정패널 투자 붐이라고 하는 2개의 파도를 탐
 - 2018년 여름부터 대형 반도체메이커가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등 반도체업계의 활황에 그림자가 드리움
 - 그럼에도 오가와 가쓰미(小川克己)동사 사장은 수요 사이클은 있으나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한, 양적·질적 면에서 모두 감소하는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음
- 예를 들면 자동운전이 보급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상에서 도로나 교통의 정보를 망라한 다이내믹 맵(3차원 지도)이 사용될 전망임
 -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한 대당 탑재되는 반도체가 증가할 뿐 아니라,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도 증가함

- 요도가와 휴테크는 동경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에 창립
 - 당초는 중화학공업의 성장기로서, 화학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씰(seal)재가 주력제품이었음

□ M&A는 유력수단

- 1980년대에 들어 공장자동화(FA)붐의 영향으로 로봇용 용품 관련 일감이 추가되었음
 - 불소수지는 표면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없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음
 - 그리고 1990년대 반도체와 액정패널디스플레이 등อิเล็กทรอนิกส์산업용 장치산업이 등장했음
- 오가와 사장은 틈새시장에서 시작하면서도 성장산업에 몸을 담는다고 하는 경영방침 하에서 경영을 다각화하면서 회사가 성장해왔다고 회고하고 있음
 - 액정관련 일에서는 액정패널의 반송카세트의 제조에 40년 전부터 관여하고 있음
 - 당시는 전택에 탑재되는 액정패널용임. 이것이 오늘날 건설 붐인 중국의 액정패널 공장에서 제 10세대 이상의 대형 패널을 반송하는데 사용되기까지 발전함
- 경영 다각화에 M&A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
 - 예를 들면 1996년에 요도가와 휴테크가 매수한 요도가와Medec의 주력제품은 액정패널의 핵심부재, 편광필름의 자동첨부장치임
 - 사진을 엽서에 붙이는 등의 사진처리 관련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응용되고 있음
- 매수당시 요도가와 휴테크는 사진처리사업에서 여타 분야로 사업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자금과 판로가 없었음
- 한편 요도가와 휴테크는 액정 분야의 판로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, 매수 후 Medec은 액정 분야의 장치메이커로 전환함
 - 매수 시에 불과 몇 명이었던 종업원도 일본과 한국 합쳐 약 200명으로 늘어남
- 요도가와 휴테크에서 특히 성장이 기대되는 적층세라믹컨덴서(MLCC)의 제조장치임
 - 이 장치는 2003년에 매수한 회사의 보유기술로, 이 회사에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도가와 휴테크는 액정패널 관련 장치와 상승효과도 있다고 보고, 매수를 결단했음

- 그리고 지금 전자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 중국정부의 정책하에서 중국기업으로부터 조회가 많음
- 이 MLCC제조장치의 매출액은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배증한 30억-40억 엔으로 증가할 전망
-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난과 후계자난 등의 이유로 사업계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국에 많이 있음
- 일본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사업계속을 위해 M&A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음
- 이러한 점에서 요도가와휴테크는 시대를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사업계승으로 이어지게 할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했고, 동시에 요도가와 휴테크 자신의 성장의 원천도 되었음

□ 항상 섬썩·뉴(some thing new)

- 이러한 동사도 2008년 리먼 쇼크 후에 매출액이 감소, 2016년 3월기까지의 실적은 일진일퇴를 거듭했음
- 이 시기에는 리튬이온 2차전지(LIB)용 셀재나 반도체설비에 사용되는 독자기구인 약액배관 나노링크 등의 개발을 추진해왔음
- 현재 이들 제품이 사업으로서 개화기를 맞고 있으며 셀재는 전기자동차용, 나노링크는 첨단 반도체제조설비를 용도로 수주를 늘리고 있음
- 이렇게 하여 신사업을 창출해왔던 배경에는 동사의 사풍도 있음
- 오가와 사장은 당사의 좌우명은 섬썩·뉴(무언가 새로운 것)로 매년 하나는 신제품을 내도록 도전하고 있음
-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에 관한 제안이 있으면 회사가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함.KJCF

【기업정보】 요도가와 휴테크

▽소재지=오사카부 스이타시 에사카 초 2-4-8	▽창업 = 1964년
▽사장 = 오가와 가쓰미(小川克己)	▽매출액 = 약 300억 엔(2018년 3월기)

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8년 9월 25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345/>